

마이데이터 플랫폼 준비는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와 함께



프레스룸

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유통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
- 데이터 산업을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코스콤 금융클라우드에서 제공

1. 코스콤, 데이터 산업의 소부장 기업

- ①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
- ② 데이터 산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API플랫폼, 데이터 솔루션, 보안장비 등을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상에서 한번에 해결이 가능함

2. 안전한 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위한 API플랫폼

- ①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란 특정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에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해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기술.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API로 연결하게 되면 새

로운 플랫폼을 만들지 않아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엮어 확장 가능.

- ② 서비스들을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편의성 제공
- ③ 금융회사의 경우 API를 통해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경우 굳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 신규 IT설비를 구축할 필요 없음. 데이터 보관과 보안 솔루션 등을 이용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도 사용한 만큼만 내면 돼 데이터 유통비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장점이 있음

3. 마이데이터 준비기업에게 API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

- ① 코스콤은 지금까지 자본시장내에서 API플랫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와 코스콤 금융클라우드, 데이터 보안솔루션, 네트워크와 보안장비 등을 연결해 고객사들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② 마이데이터나 중계기관 사업자 데이터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고객사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준비
- ③ 고객사들이 데이터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업의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코스콤에서 제공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oscom.co.kr